

러내고, 약간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불행의 곳이 보인다. 그 너머 난바다에는 수면 위로 보일 듯 말 듯 한 작은 무인도 몇 개가 있는데, 그중 유독 거냥의 모서리라는 섬 하나가 과도치는 한복판에 보루와 같은 모양새로 눈에 띈다.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보이는 이 분지 어귀에서는, 주변의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와 저 멀리 암초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온 산에 메아리쳐 내내 울리고 또 울려 퍼진다. 그러나 오두막 바로 아래까지 오면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위에 보이는 것이라곤 그저 성벽처럼 깎아지른 거대한 바위들뿐이다. 나무들은 바위 밑에서도, 갈라진 바위틈 사이로도, 구름이 머무는 바위 꼭대기 까지도 떨기를 이뤘 무성하게 자라 있다. 바위 봉우리가 불러들이는 비는 종종 녹갈색을 띤 암벽 자락에 무지갯빛으로 색을 칠하고, 바위 밑에 고여 들어 자그마하게 흐르는 라타니아강의 수원을 이룬다. 분지를 둘러싼 암벽 안쪽, 공기와 물과 빛 모든 것이 평화롭게 어우러지는 그곳에는 거대한 침묵이 감돌고 있다. 그 안에서 간신히 울려오는 메아리는 캐비지야자나무가 살랑거리는 소리를 되받을 따름이라, 바위 위로 우뚝 솟은 고원에서 자라난 야자나무에서는 늘 그 빠주름히 기다란 우듬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 바닥으로 부드러운 빛이 아롱대는 이 분지에는 한낮에만 해가 비친다. 하지만 첫새벽부터 밀려드는 햇살은